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치수 129p, 중고선가치수 106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치수는 129p(-, WoW), 중고선가치수는 106p(+3p, WoW)를 기록함. 대우조선해양이 30만DWT급 LNG추진 VLCC 10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3년까지라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이 Seaspans로부터 15,000TEU급 LNG추진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3년 4분기까지라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이 익명의 선주로부터 15,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3년까지라고 보도됨. (Clarksons)

Evangelos Pistiolis doubles VLCC order at Hyundai to eight ships

현대중공업이 그리스선주 Evangelos Pistiolis로부터 VLCC 4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스크러버탑재형으로 척 당 선가는 약 9,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된다고 보도됨.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경기부양책을 가동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탱커 시장이 회복 기조를 달리게 된다는 투자자들의 확신을 반영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Dee4 clients book three MR tanker newbuildings at Hyundai Mipo

현대미포조선이 Carsten Mortensen의 Dee4 Capital Partners로부터 50,000DWT급 MR탱커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3,400~3,5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납기는 2022년 상반기까지라고 보도됨. (TradeWinds)

Clarksons Platou splits out eco tanker assessments to show rate gap

Clarksons Platou Securities "eco"와 "non-eco" 탱커의 운임 차이를 언급했다고 보도됨. Eco 선박을 2015년 이후 건조된 선박으로 정의하고, VLCC의 경우 12.25노트의 운항속도를 가정하면 2010년 건조된 선박 대비 하루 15톤가량의 선박연료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도됨. Worldscale 운임 기준으로 그 차이는 하루 5,800달러 차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Novatek's Mikhelson presses Putin for concessions to support LNG ambitions

Novatek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LNG수출터미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해 주기를 요구했다고 보도됨. Novatek은 Global LNG 시장 내 최대의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려는 목표 하에 Yamal LNG, Arctic LNG 2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중인 2개의 LNG수출 터미널에 대해 세액공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KAI-ELBIT, 차세대 무인항공기 협력 MOU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스라엘 국방기업 엘빗(ELBIT)과 차세대 무인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국내외 무인기 시장을 대상으로 차세대 무인 체계 기술개발 및 마케팅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보도됨. 무인체계 기술은 지상통제센터를 통한 비행제어와 자동 비행을 할 수 있어 군용기뿐만 아니라 미래형 이동체 연구에도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